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연설

존경하는 경주시민과 경북도민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오신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인의 문화 축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
국을 찾아 주신 각국의 문화예술인과 관람객 여러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특히 이의근 지사를 비롯한 경북도민 여러분,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
든 행사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
습니다.

이곳 경주는 세계적인 문화와 역사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만의 자랑이 아니
라 60억 인류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돌맹이 하나, 이끼 한줌에도 찬란했던
1천년의 신라문화와 신라인들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미 이 일대를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곳에서 우리는 세계 최초이자 단 하나밖에 없는 문화박물관회
를 열고 있습니다. 경주만이 해낼 수 있는 참으로 값지고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

습니다. 세번째를 맞은 올해 행사도 온 국민과 세계인들의 참여 속에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문화예술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지식과 문화창조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문화강국이 곧 경제강국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문화의 세기'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적 전통이 있습니다. 무려 5천년 동안 민족과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해 온 것만으로도 우리 문화와 문화창조력의 우수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지식문화강국' 실현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저력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선조들이 물려주신 유형·무형의 문화적 유산들을 오늘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관광산업은 물론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 행사가 그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영상과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을 비롯한 문화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2만 달러 시대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산업의 토대가 되는 순수예술과 전통문화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참가자 여러분,

이번 행사의 주제는 '천마의 꿈'입니다. 그 옛날 신라인들은 삼국통일을 꿈꾸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냈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마감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에 통합과 협력의 새 질서를 주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바로 지구촌의 평화, 그리고 인류의 화합과 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제 꿈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이러한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음주에 이곳 대구·경북 지역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개막을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